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2 pp. 602-609,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2.602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이연법인세 정보를 이용한 이익조정 및 사업성과 분석

윤한국, 김진섭*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The Analysis of Profit Adjustment and Business Performance Using Deferred Corporate Taxes Information

Han-Kuk Yun, Jin-Seop Kim*
School of Business,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발생주의 회계 하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회계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주의 회계에 비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연법인세 계정의 증감을 통해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이연법인세 순액을 이연법인세순자산으로 정의하여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되면 '1', 감소되면 '0'인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관심변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전년 대비 총자산순이익률(ROA: Return on Assets, 이하 ROA) 증감을 사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심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액이 클수록 전년 대비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하였다. 둘째, ROA가 증가한 경우와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만 ROA와 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전년 대비 ROA가 소폭 감소하였거나 소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자는 전년 대비 사업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소규모의 이익조정을 행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외부 정보이용자들은 이연법인세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감독기관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Under accrual basic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may be less reliable compared to cash basis accoun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profit adjustment through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deferred tax accounts. For our empirical analysis, a dummy variable of '1'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when the deferred tax net assets increased from the previous year and '0' when the deferred tax net assets decreased. Meanwhile, the variables of interest were discretionary accruals and ROA varia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stablish the relevance between variables. Results found larger discretionary accruals related to lower net deferred tax asset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addition,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ROA and net deferred tax assets only if the ROA increased and net profit was greater than '0'. Study results will enable deferred tax information to be used in investment decision-making, and supervisory institutions can establish policies to prevent profit adjustments and enhance reporting standards.

Keywords : Accrual Basic Accounting, Profit Adjustment, Deferred Tax, Discretionary Accruals, ROA, Net Profit

*Corresponding Author : Jin-Seop Kim(Pusan National Univ.)
email: kjinsep@pusan.ac.kr
Received October 12, 2020 Revised December 9, 2020
Accepted February 5,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회계 정보는 발생주의 기준에 의하여 인식된다. 발생주의 기준은 현금주의 기준에 비해 적시성, 목적적합성 등 회계의 정보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여겨지나, 기간 귀속의 측면에서는 경영자에 의한 사업성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단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적자 회피, 이익 감소 회피, 목표이익 달성 등과 같은 여러 사업성과 조정 유인으로 인해 회계부정 및 분식회계로 이어져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이익의 질은 낮게 평가될 여지를 남긴다.

회계부정 및 분식회계가 국가 경제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과거 경험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경영자의 발생주의 이익조정 행태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그간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는 이익보고 행위의 타당성과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고, 나아가서는 현행 회계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조정 행태는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량적 발생액이라는 측정치가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정 방법인 수정 Jones Model(Dechow et al, 1995)[1] 등을 통해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조정의 행태는 여전히 관찰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측정상의 오류와 해석상의 논란으로 인해 그 한계가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량적 발생액을 대신하여 이연법인세가 가진 정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연법인세 회계와 재량적 발생액의 관련성을 먼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이연법인세 계정의 변동에 따른 기업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와 함께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제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연구 모형 및 가설과 표본을 선정하는 등 연구의 방법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며,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논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는 1998년 4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이연법인세 회계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연법인세 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되는 회계이익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계산되는 과세소득 간의 일시적 차이를 이연법인세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법인세 부담액에 자산과 부채의 일시적 차이를 나타내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반영시켜 세전이익에 대응시킬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연법인세 회계는 자산과 부채가 보다 적절하게 기록되고 산출된 당기순이익이 사업성과를 보다 적절하게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2 선행연구

Burgstahler and Dichev(1997)[2]는 '0'을 다소 선회하는 구간의 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수가 '0'에 약간 미달하는 구간에서 이익을 보고한 기업 수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기업이 적자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하고 있는 증거라고 판단하였다.

송인만 등(2004)[3]은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기업의 이익조정 분포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익 구간이 '0'에 약간 미달하는 적자보고 기업의 절반 이상은 이익조정으로 흑자를 보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규안과 박종일(2002)[4]은 과세소득보다 회계이익이 클수록, 수정 Jones Model (Dechow et al. 1995)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이 클수록 기말 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부채가 보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인기 등(2005)[5]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관련한 측정치는 이익조정 행위를 발견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관련한 측정치 중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재량적 차이 평가, 감액과 관련한 재량적 차이가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다.

김지홍과 고윤성(2006)[6]은 적자보고 회피 기업과 보고 이익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적자회피 보고 기업 중에서도 한계 법인세율로 측정한 조세부담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재무보고 이익과 세무보고 이익의 차이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곽태완과 노준화(2008)[7]는 수정 Jones Model (Dechow et al. 1995)에 의해 도출된 재량적 발생액은 법인세부담액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지만, 법인세비용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윤성만 등(2009)[8]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재량적 차이와 비재량적인 차이로 구분하고 재량적 차이의 측정치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발견함에 있어 유용한지를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재량적 차이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나 재량적 발생액 보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발견함에 있어서 우월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재량적 발생액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은주(2020)[9]는 경영자가 이익유연화를 하는 경우 우수한 능력의 경영자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더 이익유연화를 잘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영자 능력가설에 따라, 우수한 능력의 경영자는 자신의 능력을 시장에 알리기를 원하며, 주주 및 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원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홍조 등(2008)[10]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만료 이전에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한 이익조정을 실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큰 기업일수록 보고이익 상향조정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혜리(2017)[11]는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사적 이익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종업원 및 채권자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인 음(-)의 발생액인 자산손상차손과 양(+)의 발생액인 재량적 유동적 발생액이 동시적 이익조정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심호석(2012)[12]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익조정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경영자들은 조정전 이익이 이익예측치에 미달할 때, 이익조정을 통해 이익예측치를 충족하려는 동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현주(2017)[13]는 K-IFRS 도입 후 회계이익의 질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발생액의 정도에 따른 이익의 지속성과 예측력은 빌생액의 질이 양호한 집단일수록 이익의 지속성과 예측력이 더 높음을 볼 수 있었고 회계이익의 미래현금흐름 예측능력이 또한 더 양호함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송은주 등(2014)[14]은 경영자의 적자회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일시적 차이, 재량적 성격의 일시적 차이, 평가 관련 일시적 차이, 충당금 관련 일시적 차이가 이익조정 여부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곽영민 등(2019)[15]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검증 결과, 외국인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종 등(2012)[16]은 기업의 수명주기의 제단계에 따라 발생액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생액은 진입 기업, 성장기 기업이 성숙기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크며, 도태기 기업과 쇠퇴기 기업이 성숙기 기업보다 유의하게 작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박희우 등(2009)[17]는 분기별 이익조정 행태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의 이익조정 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인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4분기에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당기순이익과 재량적 발생액의 모습은 손실기업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음의 당기순이익과 재량적 발생액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내외 이익조정 및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연법인세와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많으나, 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감 방향의 개념을 사용한 연구는 없었다.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이연법인세부채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이연법인세순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이연법인세순자산의 증감 방향과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개념을 확장하여 당기순이익 흑자 여부뿐만 아니라 ROA의 증가 여부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당기순이익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ROA 등 기업성과 지표는 전년 대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다른 선행연구에는 없었던 새로운 관점의 연구라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기업의 회계이익을 높게 보고하기 위해 경영자가 임의의 판단으로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는 임의의 이익 증가 금액이 익금불산입으로 처리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 음(-)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연법인세순자산'은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이연법인세 순액으로 정의한다. 한 건의 회계처리만 놓고 본다면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기업에는 수많은 요인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증감이 존재하므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DEF_{it} = \alpha_0 + \beta_1 DA_{it} + \beta_2 CARRY_{it} + \beta_3 DE_{it} + \beta_4 SIZE_{it} + \beta_5 \Delta CFO_{it} + \beta_6 BIG4_{it} + \beta_7 LARGEST_{it} + \varepsilon_{it} \quad (1)$$

Where, DEF denotes dummy variable of deferred corporate tax net assets, DA denotes discretionary accruals, CARRY denotes dummy variable of existence on retained earnings, DE denotes debt ratio, SIZE denotes natural logarithm of total assets, CFO denotes operating cash flow of acceleration, BIG denotes scale of external auditors, LARGEST denotes maximum investors equity ratio

Eq. (1)에서 종속변수인 DEF_{it}는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되면 1, 감소되면 0인 더미변수이다. 관심변수인 DA_i는 수정 Jones Model(Dechow et al. 1995)에 의해 도출된 기업 i의 t년도 재량적 발생액이다.

통제변수로는 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 여부($CARRY_{it}$), 부채비율(DE_{it}), 영업현금흐름의 변동(ΔCFO_{it}), 총자산($SIZE_{it}$), 외부 감사인 규모($BIG4_{it}$), 최대투자자 지분율($LARGEST_{it}$)를 선정하였다. 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 여부($CARRY_{it}$)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미래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감소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비율(DE_{it}) 변수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금조달 등의 필요에 따라 회계이익을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하므로 이연법인세 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업현금흐름의 변동(ΔCFOit) 변수는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할수록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높이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자산($SIZE_{it}$), 외부감사인 규모($BIG4_{it}$), 최대투자자 지분율($LARGEST_{it}$) 변수는 외부 감시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오히려 보고이익을 감소시킬 유인이 존재하므로 통제가 필요한 변수이다. 한편, 수정 Jones Model(Dechow et al, 1995)에 따라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DA_{it})에 연도별, 산업별 요소가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연도별, 산업별 더미변수는 통제변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윤순석(1998)[18]은 경영자가 임의로 회계이익을 조정하는 경우, 재량적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영업현금흐름보다는 전년 대비 성과(ROA)의 증감이 더 타당하다. 예컨대, 영업현금흐름이 전기 5억원에서 당기 10억원이 되었다면, 당기의 영업현금흐름인 10억원은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일 수 있지만 당해 기업의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는 100%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사업성과(ROA)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 기업은 이익조정을 통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DEF_{it} = \alpha_0 + \beta_1 \Delta ROA_{it} + \beta_2 CARRY_{it} + \beta_3 DE_{it} + \beta_4 SIZE_{it} + \beta_5 \Delta CFO_{it} + \beta_6 BIG4_{it} + \beta_7 Largest_{it} + \varepsilon_{it} \quad (2)$$

Where, ROA denotes return on assets

Eq. (2)에서 관심변수인 ΔROA_{it}는 기업 i의 t-1년도 ROA 대비 t년도 ROA 증가분이다. 그 밖에 종속변수와 관심변수는 Eq. (1)과 동일하다.

3.2 표본 선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KOSPI & KOSDAQ)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중분류 중) 금융, 보험, 연금업 등 금융 관련 업종에 속하지 않는 12월말 결산기업 1,972개를 우선 추출하였다.

이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를 한번이라도 보고하지 않은 기업은 종속변수의 더미변수 및 ROA의 증감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367개를 제외하였다. 또한, 감사의견이 한번이라도 '적정의견'이 아닌 기업은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322개를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283개를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동 표본 기업에 대해 3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 재무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Fn-Guide의 DataGuide 5.0에서 추출하였다.

Table 1. Sample Selection

Category	N		
Target Enterprise (Excluding Finance)	1,972		
Without Deferred Tax	(367)		
Not Unqualified Opinion	(322)		
Sample	1,283		
Composition of Sample	2016	2017	2018
Net Deferred Tax Asset Increasing	764	697	772
Net Deferred Tax Asset Decreasing	519	586	511
SUM	1,283	1,283	1,283

한편, Table 1의 총 표본 수 3,849개 중 관심변수인 재량적 발생액(DA), ROA 변동 비율(⊿ROA)과 통제변수인 부채비율(DE), 기업규모(SIZE)에 대해 상·하위 1% 극단치 380개를 표본에서 제거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기술 통계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이용될 변수의 기술통계다. 기술통계는 연구대상 기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통합한 결과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ean	Median	Std. Dev.
DEF	0.5843	1.0000	0.4929
DA	-0.0011	-0.0113	0.0602
⊿ROA	-0.4635	-0.3100	5.3488
CARRY	0.9115	1.0000	0.2841
DE	92.7991	67.8700	83.1325
SIZE	12.5408	12.0000	1.4937
⊿CFO	-0.3178	-0.3056	7.1285
BIG4	0.5074	1.0000	0.5000
LARGEST	41.6354	41.0100	15.1472

DEF(이연법인세순자산)는 평균이 0.5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위수는 1이다. 이는 이연법인세 순자산이 증가한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DA(재량적 발생액) 평균은 -0.0011로 음(-)의 값이며 중위수 또한 -0.0113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중위수가 더 낮다. 이는 기업들이 실제이익보다 보고이익을 낮춰서 보고하는 빈도는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ROA(ROA 변동 비율)는 평균이 -0.4635이고 중위수는 -0.3100으로 모두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ROA가 감소한 기업들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4.2 다변량 분석

이연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경영자가 행한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DEF)는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증가한 기업이면 '1', 감소한 기업이면 '0'으로 하는 더미 변수를 사용한다. 재량적 발생액과 ROA 변동 비율을 관심변수로 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Table 3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다. Table 2의 기술통계에서 포함된 변수를 추가시켜 이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은 Eq. (1)의 검증 결과이다. Eq. (1)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대용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이 이연법인세 계정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모델 1의 결과에서 관심변수인 DA(재량적 발생액)와 종속변수인 DEF(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자가 임의로 발생액을 증가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발생액을 감소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 Logistic Regression Results

Variables	Model 1	Model 2
Intercept	1.3652(4.24)***	1.3897(4.31)***
DA	-1.9419(-2.94)***	-
⊿ROA	-	-0.0290(-4.28)***
CARRY	0.3037(2.30)**	0.2325(1.79)*
DE	0.0003(0.57)	0.0004(0.85)
SIZE	-0.0895(-3.33)***	-0.0881(-3.27)***
⊿CFO	-0.0073(-1.33)	0.0049(0.97)
BIG4	-0.0242(-0.31)	-0.0157(-0.20)
LARGEST	-0.0046(-1.97)**	-0.0046(-1.96)**

* p<.05, ** p<.01, *** p<.001

이는 기말 재무제표에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도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비대칭 때문에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부 정보이용자들은 재무제표에 공시된 이연법인세 정보를 파악하면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보다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즉, 이연법인세가 이익조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델 2는 Eq. (2)의 검증 결과이다. Eq. (2)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증가한 경우에 그것이 이익조정의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모델 2에서 ⊿ROA(ROA 변동비율)와 DEF와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OA가 증가될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감소하고 ROA가 감소될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ROA가 증가했을 때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

Table 4는 ROA가 증가했을 경우와 감소했을 경우를 나누어 DEF와 ⊿ROA 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ROA가 증가한 기업의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많이 했는지, ROA가 감소한 기업의 경영자도 이익조정을 많이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사업성과가 시장의 영향 등으로 급격히 하락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이익을 높이기보다는 다음 연도의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Table 4. Logistic Regression Results(ROA Criterion)

Variables	ROA Increasing		ROA Decreasing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Intercept	1.83(3.84)***	2.20(4.37)***	1.13(2.50)**	1.06(2.26)**
DA	-2.01(-2.00)**	-	-0.91(-0.96)	-
⊿ROA	-	-0.04(-2.74)***	-	-0.01(-0.88)
CARRY	0.04(0.22)	-0.15(-0.73)	0.47(2.62)***	0.47(2.60)***
DE	0.01(1.18)	0.01(1.39)	-0.01(-0.29)	-0.01(-0.23)
SIZE	-0.12(-2.96)***	-0.13(-3.13)***	-0.07(-1.88)*	-0.07(-1.78)
⊿CFO	-0.01(-1.38)	-0.001(-0.08)	0.01(0.87)	0.01(1.63)
BIG4	-0.07(-0.65)	-0.07(-0.58)	0.02(0.15)	0.02(0.19)
LAR	-0.01(-1.62)	-0.01(-1.75)*	-0.01(-1.36)	-0.01(-1.33)

* p<.05, ** p<.01, *** p<.001

Table 4 모델 1의 결과를 보면, ROA가 증가한 경우 이연법인세순자산과 재량적 발생액(DA) 간에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OA가 증가한 경우에는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감소하고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ROA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순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ROA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순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델 2에서는 ROA가 증가한 경우 이연법인세순자산과 ROA 변동 비율(⊿ROA)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OA가 증가한 경우에는 ROA가 증가할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감소하고 ROA가 감소할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ROA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순자산과 ⊿ROA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ROA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순자산과 ROA의 변동 비율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Table 4의 결과를 통해 ROA가 증가한 기업이 이익조정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Table 5는 ROA 증감 기준과 유사한 목적으로 설정한 당기순이익(NI) 기준에서 분석을 수행한 결과다. ROA 증감 기준에서는 ROA가 증가했을 경우와 감소했을 경우로 나누어 수행하였듯이, 당기순이익(NI) 기준에서는 흑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많이 했는지 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도 이익조정을 많이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Table 5. Logistic Regression Results(NI Criterion)

Variables	NI ≥ 0		NI < 0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Intercept	1.88(4.62)**	2.03(4.93)***	0.21(0.28)	0.12(0.17)
DA	-2.49(-2.98)***	-	0.77(0.60)	-
⊿ROA	-	-0.04(-4.19)***	-	-0.01(-0.56)
CARRY	-0.11(-0.46)	-0.29(-1.26)	0.56(3.10)***	0.58(3.24)***
DE	0.01(0.06)	0.01(0.44)	-0.01(-0.90)	-0.01(-0.85)
SIZE	-0.10(-3.24)***	-0.10(-3.22)***	0.01(0.20)	0.01(0.22)
⊿CFO	-0.01(-1.43)	0.01(1.07)	0.01(0.45)	0.01(0.32)
BIG4	-0.05(-0.57)	-0.05(-0.56)	0.07(0.45)	0.08(0.46)
LAR	-0.01(-1.92)*	-0.01(-1.92)*	-0.01(-0.42)	-0.01(-0.44)

* p<.05, ** p<.01, *** p<.001

Table 5의 모델 1의 결과를 보면, NI≥0인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순자산과 재량적 발생액(DA)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NI≥0인 경우에는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감소하고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NI〈0인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순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NI〈0인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순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델 2에서는 NI≥0인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순자산과 ROA 변동 비율(⊿ROA)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NI≥0인 경우에는 ROA가 증가할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감소하고 ROA가 감소할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NI〈0인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순자산과 ⊿ROA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NI〈0인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순자산과 ROA 변동 비율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Table 5의 결과를 통해 NI≥0인 기업이 이익조정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Table 4의 결과와 유사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5. 요약 및 결론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회계 정보는 발생주의 기준에 의하여 인식된다. 발생주의 기준은 현금주의 기준에 비해 적시성, 목적적합성 등 회계의 정보성 측면에서는 우수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발생주의는 적자 회피, 이익 감소 회피, 목표이익 달성 등과 같은 사업성과 조정의 유인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익의 질 또한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 공시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경영자의 이익조정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가 임의로 발생액을 증가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발생액을 감소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ROA의 변동 비율과 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도 역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하면서 ROA가 전년 대비 증가했을 경우 보고이익을 높이도록 이익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ROA가 전년 대비 증가되는 경우와 감소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ROA가 증가한 경우에는 ROA 변동 비율과 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OA가 감소한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경우와 적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흑자인 경우에는 ROA 변동 비율과 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자인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이연법인세순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이연법인세순자산의 증감 방향과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기업의 사업성과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을 때와 감소하였을 때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다름을 검증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경우와 적자인 경우에도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비교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선행연구에는 없었던 새로운 관점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연법인세의 증감 여부를 통해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파악하였으며, 이익 감소 회피, 적자 회피 등 이익조정 유인과의 관계 또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연법인세 공시 정보가 유용한 정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특히, 외부 정보이용자들은 이연법인세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시감독 기관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정교하고 세부적인 회계 기준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정 Jones Model (Dechow et al, 1995)에 의해 도출된 재량적 발생액의 신뢰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므로 이익 조정액을 더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용치를 발굴하는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 한편, 재량적 발생액이 무조건 세법과 불일치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자산·부채 장부가액 및 손익의 귀속시기와 세법 상 기준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References

[1] P. Dechow, R. Sloan and A. Sweeney,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Vol.70, pp.193-225, 1995.

[2] D. Burgstahler, I. Dichev,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s and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24, pp.99-126, 1997. DOI: https://doi.org/10.1016/s0165-4101(97)00017-7

[3] I. M. Song, W. S. Paek, H. S. Park, "Earnings Management for the Avoidance of Losses", *Korean Accounting Journal*, Vol.13, No.2, pp.29-51, 2004.

[4] K. A. Jeon, J. I. Park, "Deferred Taxes and Earnings Management", *Korean Accounting Review*, Vol.27, No.1, pp.107-135, 2002.

[5] I. K. Joo, W. W. Choi, J. I. Yum, "A Study on the Usefulness of Book-Tax Differences as a Metric for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Korean Accounting Review*, Vol.30, No.2, pp.237-275, 2005.

[6] J. H. Kim, Y. S. Koh,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Firms of Avoidance of Losses and Book-Tax Reporting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Vol.23, No.3, pp.37-64, 2006.

[7] T. W. Kwak, J. H. Rho, "The Effects of Discretionary Accruals on Corporate Taxes", *Korean Accounting Journal*, Vol.17, No.3, pp.1-20, 2008.

[8] S. M. Yoon, W. S. Choi, H. R. Jung, "Empirical Research on Usefulness of the Discretionary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Vol.10, No.4, pp.341-372, 2009.

[9] E. J. Lee, "The effect of Managerial Ability on Income Smooth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6, pp.157-166,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6.157

[10] H. J. Park, I. M. Song, "The Effect of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on Earnings Management and The Choice of Earnings Management Strategies", *Korean Accounting Review*, Vol.30, No.4, pp.1-31, 2008.

[11] H. R. Kim, "The Effect of Employee and Creditor Corporate Governance on Earning Manage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213-219,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213

[12] H. S. Shim, "Earnings Management for Beating Analysts Forecasts: Premanaged Earnings and Dispersion of Analysts' Forecasts",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Vol.30, No.2, pp.239-260, 2012.

[13] H. J. Moon, "A Comparison of Earnings Quality Between KOSPI Firms and KOSDAQ Firm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 pp.129-141,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129

[14] E. J. Song, J. Q. Lee, S. O. Park, "A Study on the impact of earnings management using closing adjustment and return adjustment items on book-tax difference", *Korean Accounting Journal*, Vol.23, No.1, pp.121-155, 2014.

[15] Y. M. Kwak, S. H. Ji,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Investments Horizons of Foreign Investor and Book-Tax Differ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2, pp.73-80,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2.073

[16] S. J. Park, E. B. Jin, K. I. Han, "The Study of the accural according to Corporate Life Cycl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0, No.7, pp.77-83, 2012.

[17] H. W. Park, B. E. Roh, C. H. Ahn, S. Y. Lee "A Study on the Differential Earnings Management on Quarterly Earnings - Focusing on Profit/Loss Firms and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 ",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Vol.10, No.3, pp.357-386,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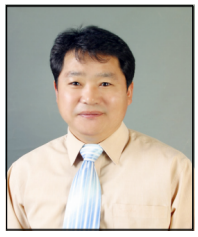
[18] S. S. Yoon, "A Study on Profit Management by Operating Cash Flow", *Korean Accounting Review*, Vol.23, No.1, pp.107-126, 1998.

윤 한 국(Han-Kuk Yun) [정회원]

- 2020년 2월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20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박사과정)
- 2006년 12월 ~ 현재 :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직

〈관심분야〉
재무회계, 세무회계

김 진 섭(Jin-Seop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 1997년 2월 :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박사)
- 1998년 3월 ~ 2006년 2월 : 밀양대학교 회계정보학과 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재무회계, 세무회계